

대구광역시



단체장 일정



홍준표 대구시장은 29일 오후 달성군 구지면 오소리 일대에서 열리는 2024 전국 산불합동 진화훈련에 참석한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29일 오후 영덕도서관 앞마당에서 열리는 경북교육청 영덕도서관 개관식에 참석한다.

홍준표 대구시정 2년... 막무가내 행정

허소 더 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 홍준표는 독선 분열 언행 점철... 결보기와 다르게 '맞' 없는 실속 성과 없는 개살구행정 연속이고 어느 하나 시원한 것 없다 일침

허소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이 작심한듯 홍준표 대구시장을 향해 독소를 날렸다.

홍 시장의 시정은 비전과 포커스가 혼란스럽다. 디테일은 취약하다. 독선과 분열의 언행으로 점철돼 있다.

이런 독선과 분열의 행보는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신년의 61% 지지율이 불과 9개월 만에 52%로 9%나 빠졌다는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도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허 대구시당위원장이 28일 대구 중구 삼덕동 시장 김대중홀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퍼부어댄 말이다.

그는 "홍 시장의 주요 업적이라곤 신공항과 달빛철도 정도인데 그것은 민주당 정부에서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국회에서 통과시켜 결실을 맺은 사업이다"고 주장했다.

허 위원장은 △달서구 태양광 사업△도청 후적지 이전 논란 △대구 취수원 이전 △박정희 동상 △신청사 이전 등 홍준표 시장의 2년은 막무가내 행정이라"고 공격 수위를 높였다.

결보기와는 다르게 '맞' 없는, 실속과 성과 없는 '개살구' 행정의 연속이고 어느 하나 시원한 것은 없고, 홍준표 시장 발 분열과 갈등의 뉴스는 끊이지 않고 있다"고 퍼부어댔다.

무엇보다 "TK행정통합은 너무 막연해 뭐라 말하기도 민망한 수준이다. 행정통합의 과정의 난맥상은 두 단계의 진정성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다. 과도도 과정이지만, 시민의 목소리는 도대체 이 중대한 사안에서 찾아볼 수 없다"고 맹폭을 가했다.

그는 "행정통합이 되면 대구경북이 어떻게 좋아지는지, 구체성이 떨어지는 이런 정도의 합량미달 중재 합의안이라"고 못박았다.

허 위원장은 "어떻게 행정통합이 가능한지, 전국적 사안인 행정체계 개편을 대구 경북만 논의한다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시민 걱정과 우려에 대구시와 경북도는 어떤 설명도 시민에게 하고 있지 않다"고 목청을 높였다.

허소 시당위원장은 "대법원 대구 이전 여야가 함께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허 위원장은 "대법원 대구 이전이 대구 미래를 위한 화합과 상생 모델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과 공동으로 (대법원 대구 이전을) 추진하면서 가칭 '대법원 대구 이전 여야명추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작은 정책이 아니라 큰 정치, 지방 살리기를 위한 혁명적 시도만이 지방소멸과 대구 쇠락의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추세를 혁신과 활력의 추세로 전환할 수 있다. 필요한 경제 분야 대형 공공기관 이전과 동시에 추진되는 것도 논의 협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허 위원장은 "향후 강대식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과도 대법원 대구 이전 사안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성용 기자



홍준표, 대구경북 100년 미래 걸린 TK통합·신공항특별법 올해 끝내자

대구시-국회 의원 예산정책협의회 낙동강취수원 다변화특별법 제정안 대구 30년 숙원사업 1300만 영남권 주민식수 안전성...연내제정 꼭 필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TK 백년대계 핵심사업을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연내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지역 국회의원들과 내년도 국비사업을 논의하는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회의에 국민의힘은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이인선 의원, 권영진 의원, 김승수 의원, 최은석 의원, 김기웅 의원, 우재준 의원이 참석했다.

대구시는 행정·경제부시장, 정책특보, 기획조정실장, 미래혁신성장실장 등 주요 간부들이 참석했다.

내년 주요 국비사업 건의

홍 시장은 △대구경북통합 특별법 제정 △TK신공항특별법 개정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 제정 등 정책 현안과 도시철도 4호선, 신공항철도 건설 등 내년도 주요 국비사업을 건의했다.

지난 21일 행정안전부, 지방시대위원회, 경북도와 4차 회담을 통해 전격 합의된 TK통합안은 시·도의회의 동의와 정부 심의,

국회 법령안 심사가 남았는데, 대구시는 특별법을 올해 안에 발의하기 위해 이들 절차를 동시에 추진한다.

100년만에 이뤄지는 지방행정 개혁의 일환으로 대구시와 협력하여 금년내 '대구경북통합 특별법' 국회 발의를 요청했다.

법안에는 '대구경북특별시'를 수도인 서울특별시와 준하는 비수도권 성장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투자·개발·재정 관련 245개 특례 사항을 담고 있다.

'TK신공항특별법' 개정안

"TK신공항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6월 주호영 부의장이 대표발의해 현재 국토교통위 계류 중으로, 지역민의 오랜 염원인 신공항의 적기 개항을 위해 연내 국회 통과를 추진중이다.

기존 SPC 방식은 금융이자만 14조 8000억 원이 발생하는 기형적 사업구조로 대구시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용자를 통한 시 직접 수행으로 사업 방식을 전환했다.

특별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공적자금을 위한 지방채 발행 시 채무계상 면제, 1급 신공항건설본부 설치 등 대구시 직접 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들이다.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특별법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특별법' 제정안역



시 지난 9월 윤재옥 의원이 대표발의해 현재 환경노동위 계류 중이다.

대구시의 30년 숙원사업이고 1300만 영남권 주민들의 식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내에 제정이 필요하다.

법안의 주요 골자는 안동댐을 취수하는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안동댐 주변 등 취수 영향지역에 대한 지원이다.

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비(90억 원) 등 지원, 글로벌 AX 혁신 기술개발 사업의 예비타당성 면제 및 연구개발비(131억 원), 신공항철도(110억 원), 도시철도 4호선(210억 원) 등 교통인프라사업, AI반도체 기반 데이터센터(75억 원), 전기차배터리 안전성 평가센터(20억 원) 등 미래산업 관련 신규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도 건의했다.

홍 시장은 "대구경북 100년 미래가 걸린 TK통합, TK신공항 건설 등 주요 핵심 현안을 속도감 있게 준비, 올 연말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겠다"고 말했다. 조여는 기자

주낙영, APEC 준비...국비 지원 총력전

국회 예결특위 의원들 만나 APEC 필수사업 868억 건의

주낙영(사진) 경주시장이 28일 국회의를 방문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APEC 정상회의 관련 사업 국비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서다.

주시장은 "2025년 APEC 정상회의가 성공하려면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정부 예산 확정까지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최대한 많은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주시장은 서일준(경남 거제), 임미애(비례대표), 조승환(부산 중구영도), 김승수(대구 북구을), 임종득(영주·영양·봉화) 의원 등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위원 5명을 차례로 만나 APEC 필수사업과 지역 현안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했다.

주시장은 지난해 10월에도 국회의를 찾아

지역 현안 사업의 타당성과 국비 지원을 호소한 바 있다.

주시장은 10층 높이의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건물을 오르내리며 의원들 만나기 위한 강행군을 펼쳐야 했다.

주낙영 시장은 의원들과의 만남에서 경주시가 전략적으로 추진 중인 APEC 정상회의 관련 사업 4건과 경주유성 복원 등 18개 지역 핵심 사업에 대한 내년도 국비 868억 원을 건의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보문단지 야간경관 개선 125억원 △APEC 문화동행 축제 개최 50억원 △속박시설 정비 100억원 △APEC 기념공원 및 기념관 건립 108억원 등 지역 현안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예산을 요청했다.

주시장은 국제 감소로 인한 교부세 축소에 대응해 지역 경제 활력을 도모할 신규 사업 예산도 건의했다. 윤용찬 기

2025 APEC 정상회의의 경주유치

月刊 정치와시림 곧 독자 결의로 다가갑니다!

달서구, 취약계층 건강지원 영양꾸러미 전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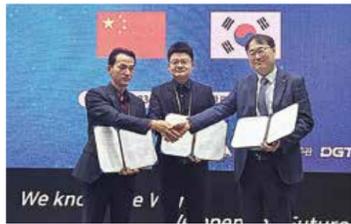
달서구가 지난 23일 구청에서 취약계층의 건강생활 지원을 위한 사랑의 영양꾸러미 전달식을 추진했다. 영양꾸러미 사업은 2020년 달서구사회와업

무협약을 맺고 취약계층의 건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종합영양제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상인종합사회복지관과 연계해 추진되며, 후원자의 영양제 기부와 후원금으로 마련됐다.

후원금을 기부한 백두병원(1975년 개원한 정형외과 전문병원)은 이웃사랑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병원이다. 영양제 후원은 달서구사회에서 종합비타민, 유산균 120세트, ㈜에이팜건강에서 단백질쉐이크와 그린프로폴리스 240세트, 종근당에서 비타민젤리 240세트를 기부했다. 조여은 기자



대구 스타기업들 글로벌 기업들과 협업 속도



FIX 해외바이어 수출상담회 계기 (주)한국알파시스템 · (주)IGIS 등 기업 글로벌 기업들과 업무협약 체결

대구스타기업들이 글로벌 시장 진출을 목표로 다양한 분야의 협력에 나섰다.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FIX 2024'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에서 (주)한국알파시스템, (주)IGIS 등 글로벌 기업들과 의미 있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주)한국알파시스템은 태국업체와 태국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AI 기반 시민안전기술을 태국 스마트시티 파일럿 프로젝트에 적용하며, 효율적인 도시운영과 공공안전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력 향상과 함께 해외 진출의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한국알파시스템은 2001년에 설립된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영상 보안전문 기업으로, 사고예방시스템·AI주차관제시스템·지능형 CCTV·차량번호인식시스템·달리닝 기반 객체검출 및 추적 기술 등 다양한 보안 솔루션을 제공하며 업계 선도하고 있다.

드론 솔루션 전문기업 (주)IGIS는 로봇 전문기업인 딥로보틱스(Deep Robotics)와 국내 로봇 전문기업인 UND와 삼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주)IGIS는 무인 드론 운용기술과 공간정보 기술을 융합해 업무 활용도를 높인 DFOS 플랫폼(드론 운용에 필요한 기능, 미션비행, 실시간 스트리밍 등)을 통해 국내외의 공공 및 민간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업체이다.

(주)UND는 로봇 자동 통제인지를 이용해 제조, 서비스, 컨슈머시장의 협동로봇에 다양한 로

봇 톨을 빠르게 탈부착 할 수 있는 핵심기술을 보유한 로봇 시스템 통합 기업이며, 딥로보틱스(Deep Robotics)는 2017년 설립해 산업용 지능형 4족보행 로봇과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하고 있는 전문 로봇 기업이다.

삼사는 이번 업무협약(MOU)을 통해 로봇은 딥로보틱스(Deep Robotics)가 공급하고, (주)IGIS는 현장 적용과 마그네틱 그리퍼를 이용한 개발, (주)UND는 SW를 담당해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 도전할 계획이다.

이로써 전 세계 드론 시장의 성장과 급증하는 로봇 시장의 수요에 발맞춰 효율적인 산업 적용 및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FIX 2024 기간 동안 대구보건대학교는 미국의 디지털 헬스케어 업체 엘비스(LVIS)와 디지털 특성화분야에서 지·산·학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디지털 의료기 수행에 필요한 맞춤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

협약내용은 전문 인력 양성 및 채용 연계를 위한 지역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등이다.

엘비스는 인공지능(AI) 기반 뇌질환 진단 솔루션을 연구개발하는 스타트업으로, 뇌 회로를 분석해 뇌질환을 진단하고 치료법을 제안하는 소프트웨어 '뉴로매치(NeuroMatch)'를 개발한 업체이다.

대구시와 함께 2024년부터 AI 기반 뇌질환 진단 디지털의료기기 실증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대구보건대학교는 해당 사업의 실증교육 거점대학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대구보건대학교는 임상병리학과를 중심으로 뇌전증 등 뇌질환 진단 검사법에 대한 교육과정을 운영 중이며, 엘비스와의 협력을 통해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첨단 기술을 교육 현장에 반영해 미래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류동현 대구시 AI블록체인과장은 "FIX 2024를 통해 대구 스타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과 혁신을 인정받고 있는 점이 매우 의미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글로벌 진출 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성용 기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대구시는 오는 31일 화재로 인한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붕괴를 가정해 '2024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한다. 안전한국훈련은 대구시 재난에 대비해 범국가적 총력 재난대응체계 확립을 위한 훈련으로 중앙부처와 시도, 시군구, 공공기관 전국 335개 기관이 상반기와 하반기 중 연 1회 실시한다. 대구시의 이번 훈련은 방화로 인한 건물 및 전차 화재, 가스누출로 인한 화재 확산 및 건물 붕괴가 일어나는 상황을 가정해,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에서 대구시·달서구·달서소방서 등 20개 참여기관의 현장대응 훈련이 진행되며, 대구시청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현장과 연계한 토론훈련이 진행된다.

대구시교육청, 디지털 기반 전공 선택과목 검색 지원

선택과목 검색 프로그램 개발 대구진학진로정보센터 배포

2022년도에 서울대에서 전공 연계 교과이수 과목을 발표함에 따라, 수도권 등 주요 대학에서도 전공별 교과 이수 권장과목을 핵심과목과 권장과목으로 구분해 발표했다.

이에, 대구시교육청은 지난 4월에 서울대 등 8개 대학의 전공에 따른 이수 권장과목을 검색할 수 있는 '전공 연계 선택과목 검색 프로그램'을 최초로 개발해 엑셀 파일로 각 학교에 배포했고, 이후 디지털 기반으로 쉽게 검색이 가능한

시스템 개발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 결과,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누구나 8개 대학의 전공별 권장과목을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기존의 엑셀 파일을 기반으로 '디지털 기반 전공 연계 선택과목 검색 프로그램'을 개발해 28일부터 대구진학진로정보센터 누리집(www.dge.go.kr/jinhak)을 통해 배포한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는 희망하는 전공에 필요한 교과목을 미리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학생이 관심을 가지는 교과목과 연계되는 관련 전공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교사들의 학생 진로지도에도 유용하게 이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각 대학의 학과별 이수 권장 과목 정보를 검색하며 다른 대학 학과를 3개까지 병렬로 한눈에 비교·분석하고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는 기능을 구현했고,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에 맞는 전공을 선택할 때 더 자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학과 소개 동영상도 탑재되어 있다.

강은희 교육감은 "학생부종합전형의 평가요소 중 하나인 진로 역량을 기르기 위한 전공 관련 교과 이수 노력은 학생의 과목 선택에서 시작한다"며 "많은 학생들이 여러 선생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열심히 개발한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주도적으로 자기 적성에 맞는 진로를 탐색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여은 기자

군위군, 6·25 전쟁 전사자 유해발굴 개토식

군위군수 제50보병사단장 등 참석 매봉산·국통산·마정산 일대 추진

군위군은 지난 25일 군위군 총합동에서 육군 제50보병사단 주관으로 6.25전쟁 전사자 유해발굴 개토식을 거행했다. 이 행사에는 김진열 군위

군수, 최규종 군위군의회 의장, 정유수 제50보병사단장을 비롯해 주요 기관단체장 100여 명이 참석하여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며 유해발굴의 시작을 알리는 첫삽을 뜨는 시간을 가졌다.

6.25 전사자 유가족들의 70여 년의 한을 풀어주고, 나라를 위해 희생된 분들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국가보훈 정책의 일환인 유해



발굴사업은 2001년부터 군위군 주요 격전지인 매봉산, 국통산, 마정산 일대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박재성 기자

강한 신문 대구광역시보 '독자의 기쁨' 까지 생각합니다.

창간 1996년 7월 11일 등록번호 대구가 00016(일간) 누리집: www.dgy.co.kr 전자우편: dgynews@daum.net 발행인 김영숙 | 편집인 김성용 | 부사장 조여은 | 편집국장 김현석 대구시 중구 태평로 286 (2층) 대표전화 053-253-0000 FAX 053-253-0041 광고접수 053-257-0000 대표 053-267-9000 경영지원국 053-267-5000 광고국 053-267-0800 문체부 053-253-0065 부사장 053-254-0500 기획조정실 053-267-0600 사회부 053-253-0060 지방부 053-253-0064 편집국장 053-267-0200 인원실 053-267-0700 정경부 053-253-0061 편집부 053-253-006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외부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Advertisement for 'Love's Warmth' (사랑의열매) featuring a young girl and statistics: 95% of donations are used for children. Includes 2023 total donation amount of 8,305 million and 7,446 million in support funds, along with various social service statistics.

축산농가 '장화 갈아 신기' 로 자율방역 연중 계몽운동!

경북도가 가축전염병에 대한 효율적인 차단방역을 위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장화 갈아 신기' 연중 계몽운동을 한다.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렘피스킨(LSD), 구

역역(FMD) 등 축산농가를 위협하는 재난형 가축전염병의 발생이 늘어 차단방역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탓이다. 축산농가의 차단방역 기본 원칙은 농장 주변, 농장 내부, 축사 내부 순으로 의

부의 병원체를 단계별 소독·제거해 최종적으로 사육가축에게 도달하지 않도록 차단한다.

도는 축산농가가 가장 실천하기 쉽지만 소홀할 수 있는 기본 방역 수칙인 '장화 갈아 신기' 홍보를 강화해 농가의 방역 수준을 높이고 자율방역도 곁들인다.



道, 공공임대주택 청년·신혼부부 정착 돕는다

LH, 현재 8만 이상 도시에만 공급
도는 8만 이하 시·군에 적용 방침
2026년까지 700호...올해는 200호



경북도가 청년, 신혼부부 등의 안정적 주거확보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새로운 방식으로 공급한다.

'저출생과 전쟁' 실행 과제에 따라 청년·신혼부부 등의 안정적 주거확보 부담을 줄이고 출산후양육 시 부담을 덜어준다.

도는 새로운 시도의 성공적 안착으로 주거 부담, 세대 쏠림 없는 주거문화 실현으로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 공공주택정책 추진으로 주거문화 대전환을 꾀한다.

현재 도내에는 공공주택 사업자가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이 약 3만7000호가 있다.

이 가운데 95% 정도인 3만5000호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갖고 있다.

LH는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인구 8만 이상 도심 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원칙으로 주거 취약계층 해소를 위한 소형 평형(50㎡ 미만) 위주의 양적 공급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다.

도는 이 같은 방식으로 15개 시·군이 인구감소 지역인 경북에선 광범위한 주거복지 사각지

대 해결이 힘들고 공급 주택도 소형에 그쳐 청년, 신혼부부 등의 주거수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도는 경북개발공사와 함께 LH 공급이 미진한 인구 8만 이하 시·군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경북개발공사를 시행 주체로 민간사업자 제안을 통한 '신축약정형 매입 공공임대주택' 공급 방식을 최초로 도입했다.

이 방식은 민간사업자 제안 공모로 선정된 우선 협상자와 설계도서 협의를 거쳐 경북개발공사가 준공 이후 토지와 건물 일체를 매입할 것을 약정하고 민간사업자가 책임지고 공사를 완료한다.

건설형 공공임대주택보다 2년 이상 입주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수요가 있는 곳에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도는 2026년까지 수요가 있는 시·군을 대상으로 총 700호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는 5개 시·군(영주, 영천, 청도, 영덕, 고령)을 대상으로 200호를 공급한다.

10월 현재 청도·영천·고령은 민간사업자와 약정 체결을 완료, 인허가 절차 이행을 준비하고 있는 등 이르면 내년 말 입주자모집을 한다.

배용수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복지를 넘어 주거 자부심이 될 수 있는 매력적인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청년, 신혼부부의 지역 정착을 돕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주택공급과 함께 지역민 모두를 위한 돌봄, 창업 등의 커뮤니티 시설도 건립해 마을공동체 회복을 이끄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용 기자



51회 울진군민 한마음체육대회 성료

아이 천진난만 웃음소리
어르신 힘찬 응원까지
세대가 어우러진 한마당

'제51회 울진군민 한마음 체육대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대회는 지난 28일 울진종합운동장에서 열렸다. 행사는 200명의 내빈과 10개 읍·면에서 약 2,000명의 선수와 군민이 한자리에 모여, 군민의 화합과 활기를 느낄 수 있었던 축제의 장이었다.

금강송면 선수단의 천마이 걸으며 시작된 난

타 공연은 힘찬 북소리와 함께 그 열기를 더해 입장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올해 처음으로 선보인 직장부 경기, 씨름, 그리고 보물찾기는 가장 큰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대회의 시작을 알린 직장부 연합달리기에는 울진군청, 울진교육지원청, 울진군의회, 한수원(주)한울원자력본부, NH농협(울진농협중앙회) 5개 기관이 참여해 열띤 응원전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

행사로 마련된 보물찾기는 어른들에게도 어린 시절의 동심을 떠올리게 하며 즐거움을 선사했다.

씨름 경기에서 울진읍과 죽변면이 치열한 접

전을 펼치며 모두가 함께 응원하고 어우러지는 장면이 연출됐다.

비록 승부는 갈렸지만, 경기 자체가 세대 간 화합의 상징이라는 뜻깊은 의미를 더했다.

올해는 탁구, 테니스, 줄다리기 3개 종목에서 최고점을 획득한 울진읍 선수단이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손병목 울진군수는 "이번 대회에서 모든 세대가 어우러지는 모습은 '화합하는 희망울진, 하나되는 행복울진'이라는 구호가 빛을 발한 순간이었다. 앞으로도 군민 화합과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경수 기자

대구교육청, 2025 예산안 4조2746억원 편성

전년 4조851억원 보다
1895억원 증액 편성...

대구교육청은 2025년도 예산안을 올해 예산보다 1895억원 증액된 4조2746억원으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강은희 교육감은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육재정의 축소 논의와 더불어 유보통합·늘봄학교 확대와 같은 국가책임 돌봄·교육 강화, 디지털 교육 대전환 등 미래교육 수요가 증가하는 불확실한 재정 여건에서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맞춘 더 좋은 교육, 더 좋은 학교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지속되는 국세 수입 감소, 고교무상교육 증액교부금과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분

의 일몰 등 교육재정이 축소되지만 세출예산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인건비 증가, 초등 늘봄학교 확대 시행, AI디지털교과서 도입 등 미래를 대비하는 예산을 본격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상황이다.

대구교육청은 교육재정의 악화에도 미래역량 교육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 위해 그동안 적립해 온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2500억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000억원을 활용해 필수 교육 활동에 집중 투입한다.

올해보다 1895억원, 4.6% 늘어난 세출예산안 주요 증감 현황을 보면 경직성 경비로 전체 예산의 60.8%를 차지하는 교직원인건비는 전년 대비 1164억원(4.7%), 학교운영비 445억원(18%), 교육복지비는 370억원(13.1%) 등을 각각 증액 편성했다. 황태용 기자

경북교육청, '학생 위기신호 조기 발견 앞장'

학생 건강 안전한 환경서
학업 전념토록 적극 지원

경북교육청이 학생들의 자살 시도와 자해 문제에 적극 대응, 학교 교사들에 대한 본격 지원한다.

현장 지원은 학생 자살 위험신호를 조기에 발

견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교사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자살 시도나 자해 행동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돕고자 학교별로 상황에 맞는 맞춤형 연수를 제공한다.

교육청은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초·중·고 36곳과 예방교육이 필요한 학교 30곳으로 나누어 지원한다. 경북교육청은 '마음건강위기 현장지원단'과 '생명지킴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현장지원단은 교사들에게 2시간 동안 자살 예방과 사안 처리, 위기 학생 연계 및 학부모 상담, 위기 학생 진단과 적절한 상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교육한다.

생명지킴이 프로그램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보고 듣고 말하기' 워크북을 활용해 교사들이 학생들과의 소통으로 위기 신호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다. 김성용 기자



경북

포항 경주
영덕 울진
청송 울릉



울진군 미혼남녀 만남행사

울진군이 새달 3일 미혼남녀 만남행사 시즌2 '청춘남녀 가을 피크닉'을 연다.

이번 행사는 공개행사에 대한 참가자들의 부담감을 덜고 반복적인 일상에서 벗어나 재충전하는 기회 가질 수 있도록 안동시에서 한다.

참가대상은 경북 거주 또는 소재 기업 재직 중인 미혼남녀이며, 남녀 각 8명씩 총 16명을 모집한다. 대상 연령은 연령층 상향에 대한 청년층의 요구를 반영, 1979~1991년생으로 조정했다. 참가희망자는 군 누리집을 참고, 11월 1일까지 참가신청서, 재직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를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관내 청년들이 부담 없이 행사에 참여하여 좋은 인연을 많이 만들어 가길 바란다"라며 응원의 말을 전했다.



"마음여행 다녀왔어요"

울릉군은 지난 23,24일 이틀간 울릉중학교에서 2~3학년 학생 66명을 대상으로 수지에니어그램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수지에니어그램은 누구나 쉽게 카드와 패드로 자기 도표를 만들어 자기 인식을 하며, 나의 고유한 본질을 찾아가도록 안내하는 결코 가볍지 않고 재미까지 있는 워크숍 프로그램이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앞으로 군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청소년들이 존엄하고 당당하게 자신을 발견하고 나아가 타인에 대한 관계 개선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경주, 금연구역 합동 점검

경주시는 금연문화 정착 및 간접 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새달 30일까지 5주간 금연구역 합동 점검·단속을 한다.

합동 점검은 보건소, 금연 지도원, 식품위생산업과 등 관련 부서를 비롯한 경주경찰서, 경주교육지원청, 한국외식업중앙회 경주시지부, 금연자원봉사단체 등 점검반을 편성해 주·야간 실시한다.

올해 확대된 교육시설 유치원·어린이집·학교 경계 30미터 이내의 금연구역 및 흡연행위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덕군민이 만든 축제
우다다다 '페스티벌'

스스로 만들어 가는
우리들의 영덕 문화
뜨겁게 즐기는 축제

영덕문화관광재단이 마련한 영덕생활문화축제 '우다다다 페스티벌'이 막을 뒀다.

행사는 지난 26~11월 3일까지 영덕읍 덕곡천 야외무대에서 열린다.

'우다다다 페스티벌'은 업사이클링아트페스타와 함께 영덕의 대표적인 주민 참여 축제다.

영덕의 생활문화와 활력을 주도하고 있는 영덕생활문화동호회를 중심으로 지역 내 단체, 학교, 타 지역 동호회까지 70여 개 팀, 650명이 참가한다.

영덕생활문화축제 기간 트로트, 국악, 댄스, 클래식, 다문화, 밴드, 7080 등 매일 다른 주제로 골라보는 재미와 다채로움을 더했다.

올해는 각 생활문화동호회가 1년간 갈고 닦은 실력을 선보이는 자리에 특별 초청 손님을 초청, 분위기를 북돋운다.

첫날 개막 거리행진 후 지난 27일 전국 청소년 댄스 경연대회가 열렸다.

△28일 '우리의 소리'를 테마로 마당극 전문극단 우금치의 마당놀이 공연과 영덕별신굿, 전통민요 팀이 흥겨운 무대를 선사했다.

△29일은 '클래식의 날'로 영해중 윈드오케스트라와 손으로 말해요, 영덕주니어플루트의 공연을 선보인다.

△30일 '락앤롤'을 주제로 모던록밴드 크라이닝이 무대에 오른다.

영덕의 파워풀한 중장년 밴드와 청소년 밴드가 여세를 몰아간다.

△31일 다문화화를 주제로 한 무지개 음악회가 열리고 뮤지컬 배우 박해미가 출연한다.

11월 행사가 절정에 이른다.

1일 '댄스'를 주제로 최근 핫한 대세 댄스그룹 '프라이드맨'이 무대에 오른다.

영덕의 청소년댄스팀, 어린이발레, 시니어발레, 어린이 치어리딩팀, 중년돌 댄스그룹까지 등장한다.

2일에는 '7080'을 주제로 통기타, 하모니카, 아코디언, 색소폰 동호회가 공연한다.

초청가수 박창근이 무대에 올라 관객을 사로잡는다.

페스티벌의 마지막 날 3일에는 폐막 공연으로 영덕군민오케스트라가 유종의 미를 거둔다.

영덕문화관광재단은 "업사이클링아트페스타 전시, 체험 위주의 행사라면 우다다다 페스티벌은 영덕 군민이 주인공이 되고 관객이 돼 더불어 뜨겁게 즐기는 축제"라고 말했다.

자세한 출연진과 일정은 우다다다 페스티벌 누리집(https://www.uddf.com), 영덕문화관광재단 누리집(https://ydc.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덕문화관광재단 문화예술팀 054-730-5830으로 전화문의도 가능하다. 김성용 기자

경주시, 공중위생서비스 최우수등급 175곳 선정

숙박·목욕·세탁업 581곳 대상
3개 분야, 26~29곳 집중점검

경주시는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결과 175곳을 최우수업소(녹색등급)로 선정했다.

대상은 숙박·목욕·세탁업 등 581곳이다.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는 공중위생업소의 위생관리 수준 제고 및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업종별로 2년마다 담당 공무원과 명예공중위생감시원으로 구성된 평가반이 업소를 방문, 이뤄진다.

평가반은 지난 4월 15~9월 13일까지 △일

반현황, △준수사항, △권장사항 등 3개 분야, 26~29개 항목을 점검 했다.

등급은 점검 후 100점 만점으로 점수를 환산, 숙박업 115곳, 목욕장업 12곳, 세탁업 48곳을 최우수업소로 선정했다. 등급별 업소 현황 등 평가 결과는 경주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우수업소는 전국 시·군·구에 업소 이용·홍보 협조를 요청, 종량제봉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공중위생서비스 정기적 평가를 통해 업소들이 자발적으로 위생관리 수준을 개선하고 서비스 질을 높여 쾌적한 공중위생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장려하겠다"고 말했다. 윤용찬 기자

경주시, '찾아가는 인구교육' 큰 호응

인구 현안 이해 경주 미래
기획하는 참여형 공동연수

경주시는 지난 2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젊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참여형 워크숍인 '찾아가는 인구교육'을 했다.

교육은 공직자들이 저출산·고령화 문제와 청년인구 유출 등에 따른 인구 구조의 변화를 이해하고, 이에 따른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성희 인구와미래정책연구원 강사를 초빙해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인구정책 기획'을 주제로 펼쳐진 교육은 보드게임을 활용,



인구 현안을 이해하고 지역의 미래를 기획해 보는 방법으로 진행됐다.

직원들은 보드게임과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인구 위기에 따른 문제점을 고민하고 업무에 적용 가능한 인구정책을 기획하며 적극적으로 교

김광열, 소나무재선충병 막아라 특명

영덕군, 소나무재선충병
총력 대응 '방재단' 발대

영덕군은 오는 31일 민·관으로 구성된 소나무재선충 방재단을 구성, 발대식 및 브리핑을 한다.

동해안에 걸쳐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의 근본적인 대안과 효과적

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군은 올해 재선충병 방제 예산 28억여 원의 10억 원의 추가 군 예비비를 긴급 투입한다.

전국 자연산 송이 생산량 연속 12년 1위를 달성한 울창한 소나무 숲을 기필코 지켜낸다는 각오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민·관이 강력한 공조체



청송군, 청송사과축제 준비 '올인' 윤경희 청송군수는 오는 30~11월 3일까지 청송읍 윤전천 일대에서 열리는 '제18회 청송사과축제'를 앞두고 현장 점검에 나섰다. 윤 군수는 28일 아침 축제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확대 간부회의를 주재했다. 윤 군수는 간부회의에서 "사과축제는 청송에서 치러지는 모든 행사 중 가장 크고 중요한 만큼 모든 공직자들이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 바란다. 특히 단 1건의 사고도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사진=청송군 제공)

"폐의약품 잘 못 버리면 지구 병들어요"

청송군, '폐·의약품' 바르게
버리기사업 환경파괴 막아

청송군은 가정 내 방치된 폐의약품의 올바른 배출을 위해 연중 계몽운동을 한다.

계몽운동은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이나 사용하지 않는 약품을 일반 쓰레기로 버리지 않고, 청송군보건소의료원에 가져오면 파스, 고무장갑 등 홍보 물품으로 교환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폐의약품은 유효기간이 경과했거나 임박한 약, 변질 혹은 의심되는 약, 복용하지 않고 남은 약 등을 포함한다.

시력이 좋지 않은 어르신들은 유효기간이 지난 약을 잘못 복용할 위험이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무분별하게 배출된 폐의약품은 토양과 수질에 악영향을 준다.

항생물질 내성균의 원인이 되는 등 환경과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다.

폐의약품은 반드시 폐의약품 수거함에 분리 배출해야 한다.

폐의약품 분리배출 방법은 △가약약은 포장



지를 개봉하지 않고 그대로 배출 △알약 중 조제약은 포장지를 개봉하지 않고 그대로 배출 △알약 중 정제형은 1차 포장재(겉포장지)만 제거 후 2차포장재는 그대로 배출 △물약은 용기 그대로 마개를 잠그고 비닐봉지 등으로 이중포장 후 배출 △연고 등 특수용기는 1차 포장재(겉포장지)만 제거 후 마개 잠그고 용기 그대로 배출해야 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폐의약품 바르게 버리기 사업으로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폐의약품을 막아 약물 오염을 예방, 환경 파괴를 막을 수 있어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폐의약품은 일반 쓰레기로 배출하지 말고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동네 약국 등에 비치된 폐의약품 수거함에 분리배출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병문 기자

포항! 북극해를 열다...

포항시가 환동해권 경제 허브 도시를 건설한다.

시는 새달 5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영일만에서 북극까지, 포항! 북극해를 열다'를 주제로 '북극항로 거점항만 포럼'을 연다.

북극해빙 가속화와 북극해 이용 물동량 증대 전망에 따라 급변하는 국제정세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비한다.

경북도, 포항시, 김정재·정희용 국회의원이 포럼을 공동으로 주최한다.

포럼은 하영석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회장의 '북극항로 시대, 포항영일만항의 과제'에 대한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북극항로 시대 현황과 전망, 포항 영일만항 연계 북극항로 활성화 방안을 발표 한다.

김인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영일만항이 환동해권 물류 항만으로 도약하는 방안과 북극 정책에 발맞춘 전략 수립 등 전문가들의 토론이 진행된다.

포럼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경북연구원, 중소조선연구원, 극지연구소, 매일신문, 한국도시재생연구원 등 다양한 기관의 전문가가 참여, 영일만항의 북극항로 전진기지 도약을 위한 지혜를 모으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경북 유일의 컨테이너항만인 포항 영일만항이 본격적인 북극항로 시대를 선제적으로 대비, 환동해권 경제 허브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전력을 다한다. 북극항로 거점항만 포럼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경수 기자

계를 구축, 과학적인 조사를 바탕으로 효과적 인 전략을 수립,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군수는 "군민의 삶의 터전이자 지속 가능한 부가가치를 지닌 영덕의 산림자원을 보존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방재단에는 전문성 있는 산림법인과 설계·감리업체, 관련 담당 직원 등 95명으로 꾸려졌다.

전수 조사와 실시설계를 바탕으로 한 방재단략을 수립 후 지구별 책임방제 구역을 설정, 능동·효과적인 방제활동을 한다. 김성용 기자

경산 영천 청도 고령 성주 칠곡



대한노인회 영천, 장학금 전달

지난 23일 (사)대한노인회 영천시지회에서 116만1천원, 28일에는 (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 영천시연합회에서 각 100만원의 장학금을 (재)영천시장학회에 기탁했다.

(사)대한노인회 영천시지회는 지난 23일 영천시민회관에서 노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면서 900여 명의 노인회 회원과 함께 116만1천원의 장학금을 기탁했다.

2016년부터 꾸준히 장학금을 기탁해온 (사)대한노인회 영천시지회는 누적 기탁금액이 2,800여 만원에 이른다.

성남군 지회장은 "회원들이 지역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모은 소중한 귀한 장학금이"라며, "우리 손주 같은 학생들이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귀중한 곳에 잘 쓰이길 바란다"고 소감을 말했다.



칠곡 왜관 로타리, 난방 후원

칠곡군 왜관 로타리클럽은 지난 25일 왜관을 취약계층을 위하여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이불 20장을 후원했다.

이번 물품 지원 행사에 참여한 왜관 로타리클럽은 해마다 도움이 필요한 여러곳에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취약계층이 평소 쉽게 구매하기 망설였던 겨울 이불을 후원물품으로 정해 겨울철 추운 날씨에 힘겨운 생활을 하는 관내 이웃 20가구에 전한다.

조규상 왜관 로타리클럽 회장은 "최근 급격한 기온 변화로 쌀쌀해진 날씨에 취약계층 주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잘 보낼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회원들과 뜻을 모아 이불을 후원하게 되었다."



2024 별빛한우 명품구이 축제장

영천 '와인+한우' 브랜드 가치 강화

와인과 한우 축제 함께 2006 와인산업 선포식 시작 올해 축제 이틀 약 4만명 방문

와인과 한우, 누구나 구미가 당기는 최고의 조합이다. 이 두 가치를 한꺼번에 즐길 수 있는 곳이 있다. 바로 경북 영천시다.

과일의 고장인 영천에서 생산된 와인과 우수한 품질로 인정받은 영천 별빛한우는 많은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는다.

영천시는 매년 '영천와인페스타와 별빛한우 구이축제를 함께 개최하며, 지역 특산물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있다.

영천시는 농특산물의 1차 생산에 그치지 않고,

식품 가공 산업을 육성하고 체험·관광을 연계하여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와인과 한우는 이제 단순한 농산물을 넘어 영천의 고유한 브랜드로 자리 잡으며, 지역 경제를 이끄는 핵심 자원으로 성장하고 있다.

영천은 풍부한 일조량과 낮은 강수량, 비옥한 토양 등으로 전국에서 손꼽히는 포도 재배지이다. 영천시는 2006년 와인산업 선포식을 시작으로 꾸준한 기술 개발과 품질 개선을 통해 국내 와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췄다.

영천에는 현재 14개소의 와이너리가 운영 중이다. 와인 생산자들은 지속적인 품질 관리를 통해 국내외 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으며, 와이너리 체

험 관광을 접목해 농가 소득을 높이고 있다. 영천 와인은 베를린 와인트로피, 아시아 와인트로피 등 국내외 다양한 품평회에서 수상하며 국제적으로도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영천시는 포도 재배부터 양조까지 연계된 산업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며, 단순한 와인 생산에 그치지 않고, 와인투어와 와인학교 등 체험·관광산업을 결합해 융복합 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포도 외에도 복숭아, 자두, 사과, 오디 등을 활용한 다양한 와인으로 제품군을 확장하며, 새로운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국내 와인 소비가 증가하고 와인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영천 와인의 전망은 더욱 밝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은하 기자

'경산 바로알기, 우리마을 러닝맨' 행사 성황리 개최

진량청소년문화의집 주관 총 8개 거점 팀별 미션 수행

경산시는 지난 26일 진량청소년문화의집 주관으로 진량을 일대에서 청소년과 봉사자 3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경산 바로알기, 우리마을 러닝

맨'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학업과 디지털 매체에 익숙한 청소년들에게 야외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청소년 설문조사를 통해 체험 부스 종류를 선정하고 청소년운영위원회와 대학생들이 기획에 참여해 수요자 중심의 행사로 기획했다.

또한, 도담도담봉사단, 대구대학교 및 대구가톨릭대학교 학생, 자율방범대, 경산시청년새마을연대, 마을공동체 '느루', 경산시학부모회장협의회, 경산시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이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이번 행사는 총 8개 거점에서 팀별로 미션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경산의 읍면동 말하기 △경

산 소재 대학 △경산대추 △저수지 10선 △삼성현 퀴즈 등을 통해 청소년들이 경산의 문화를 체험하고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 외에도 △전래놀이, 양말목 티코스터, 풍선 아트 등 12개 체험 부스 △먹거리 부스 △청소년 버스킹 공연 △플리마켓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마련되어 참가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청도 초·중·고 정보 업무 담당교사 연수

건강한 디지털기기 활용 주제

경북도교육지원청은 25일 오후1시 청도학생미래교육관 창의창안실에서 초·중·고등학교 정보 업무 담당 교사 및 학부모 40명을 대상으로 2024 학년도 인터넷·게임·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교원 및 학부모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급격히 다가온 디지털 사회에서 인

터넷·게임·스마트폰 과의존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학생들의 건강한 디지털기기 활용을 위해 교원 및 학부모의 역할에 대해 함께 고민을 나누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자리였다.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원장을 지낸 배영태 원장을 강사로 초청하여 청소년 과의존 예방을 위한 부모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학부모를 대상으로 1부 강의를 진행하였다. 조여은 기자

고령 대가야생활촌가을 피크닉 성료

'캐리와 친구들' 특별공연 호응

고령군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고령군관광협의회의 회가 주관한 가을 피크닉 행사가 10월 두 차례의 주말 동안 성황리에 개최됐다.

완연한 가을 날씨 속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대가야생활촌에서 19~27일까지 두 차례의 주말에 걸쳐 성공적으로 진행됐다.

'캐리와 친구들'과 '미니특공대' 특별공연을 비롯해, 가족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행사 기간 동안 관람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순환열차는 부담 없는 가격으로 운영되어 많은 사람들이 이를 이용해 대가야생활촌을 둘러보며 추억을 남겼다. 특히 일요일마다 열린 버스킹 공연과 가야금 연주는 현장을 찾은 어린이와 어른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배영백 기자

별의 도시
영천

맑은 공기, 깨끗한 자연 속에서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주세요!

보현산 천문과학관(김형조)
경북 영천시 화북면 별빛로 681-32

구미 김천 문경 상주 의성



김천 남편 주민, 성미 기탁

김천시 남면 운남리에 거주하는 주민 강길수 씨가 올해도 어김없이 이웃을 위한 따뜻한 기부를 실천했다.

강 씨는 지난 25일 관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달라며 쌀 10kg 30포(100만 원 상당)를 남면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다. 몇 년 전부터 매년 가을 수확이 끝나면 직접 농사지는 쌀을 기부하고 있어 지역 주민의 큰 본보기가 되고 있다.

강길수 기부자는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이 추운 겨울을 조금이나마 따뜻하게 보내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나눔을 실천하며 이웃들과 함께하는 마음을 계속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전달된 쌀은 독거노인, 경로당 등 도움이 필요한 지역 내 소외계층에게 배부할 계획이다.



상주 다문화공부방 수료식

상주시가 가족센터에서는 다문화 가족공부방 사업인 ‘꿈꾸는 공부방’의 종강 및 수료식을 19·22일에 실시했다.

‘꿈꾸는 공부방’은 가족센터 방문이 어려운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화동 지역(화동복지회관) 및 은척지역(은척복지회관)에서 2월부터 10월까지 주 1회, 3시간씩 총 27회(77시간)에 걸쳐 한국어 및 한국 문화 교육, 나들이를 진행했으며 본 사업에 참가한 한 참가자는 “한국어도 배우며 한국문화 나들이를 통해 한국 역사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은정 센터장은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에 능력을 향상시켜 한국 생활에 정착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구미 맛’ 축제 인기 ‘전국구 축제’ 입지

이틀간 15만명 · 관외 20% 축제 기간 동안 소비 금액 전주 대비 73.46% 증가해 푸드페스티벌 맛술랭 선정

구미시는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송정맛길에서 열린 ‘제3회 구미푸드페스티벌’의 방문객이 15만 명을 넘어섰다.

민간 빅데이터 분석 결과 관외 관광객의 비율이 20%에 달해 전국적인 관심을 받았으며, 축제 기간 동안 소비 금액도 전주 대비 73.46% 증가해 지역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은 것으로 분석됐다.

축제 첫날은 8만 8천 명, 둘째 날은 6만 2천 명이

방문해 다양한 세대가 즐겼다. 40대의 참여율이 18.78%로 가장 높았고, 30대와 20대가 뒤를 이어 전 세대가 함께 즐기는 축제로 자리 잡았다.

시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 2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보고회를 열고, 평가 결과를 공유했다. 보고회에서는 현장평가단의 의견과 매출액, 메뉴 특별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선정된 ‘2024 구미푸드페스티벌 맛술랭’ 최고 음식점 및 메뉴도 발표했다.

최고의 음식점으로는 ‘이수제철관왕돈가스’가 선정됐고, 최고의 메뉴에는 북어튀김(북어전집), 무떡볶이(봉황국수식당), 아임봄버거(아임봄)가 뽑혔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송정맛길에서 열린 제3회 구미푸드페스티벌이 지역을 대표하는 먹거리 축



제로 자리 잡았다”며 “내년에는 더욱 발전된 콘텐츠로 전국에서 더 많은 방문객을 맞이해 ‘구미 맛’을 널리 알리는 축제가 되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구미푸드페스티벌은 ‘삼겹 굽굽존’과 유명 셰프 정호영이 참여한 ‘구미미식

존’, 60여 개의 대표 메뉴를 선보인 ‘남남쇼케이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관광객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음식과 공연이 어우러진 가을 축제로, 지역 상권과의 상생을 통해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했으며,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축제로 성공적인 평가를 받았다. 송명주 기자

의성군 상·하수도 통합행정관리시스템 구축

공사 등 비전자문서들 전산화 과거-현재 상황 비교가 가능

의성군은 신속하고 정확한 상·하수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상·하수도 통합행정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요금 및 검침 △자산 △관망 △누수 관리 △상하수도 시설물 △공사 등 비전자문서들을 포함한 모든 자료들을 전산화시킨 후 통합, 일원화하여 자료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상하수도 민원처리를 투명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다.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한 공간정보 지도, 연도별 항공영상, 분야별 주

제도를 제공받을 수 있어 거리, 면적 측정뿐만 아니라 원하는 연도의 지도를 선별할 수 있고, 이에 과거-현재의 상황 비교가 가능해지며 △도시계획도 △시설물도 △통계지도 등 분야별 주제도를 쉽게 조회하고 생성할 수 있어 각 민원의 맞춤형 지도를 추출할 수 있다.

기존 업무별로 따로 사용하던 △요금정보관리시스템(WIMS) △상수도스마트원격검침시스템 △상수도관망관리시스템 △상수도자산관리시스템 등의 시스템과, 국가 및 민간 시스템인 △새울행정시스템 △건축행정시스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지하시설물통합관리체계 △국가주조정보시스템 △카카오톡 등을 모두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어, 이로 인해 시스템 구축 전보다 간단히 정보조회 및 분석이 가

능해진다.

이와 함께 오프라인으로 관리되던 상·하수도 관련 공사대장의 온라인 조회가 가능해져 보관 중인 공사대장을 찾는 번거로운 작업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또한 특정 지점의 과거로부터 현재까지의 관련 공사 자료들을 한 화면에 모두 출력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업무 및 민원처리의 적절성과 시간 단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상·하수도 통합행정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2024년 9월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비 산정 용역을 시작으로 10월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구축하여 2026년 12월까지 완료하고 2027년 1월부터 사용할 예정이다. 박재성 기자

구미도시공사 ‘환경과학교실’

구미도시공사는 22일부터 내달 26일까지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환경과학교실’ 운영을 한다.

첫 수업은 구미 신기초등학교 5, 6학년 23명을 대상으로 22일에 진행됐다.

교육은 물의 순환, 하수처리 과정, 하수처리 분석실험 및 생활 속 환경보호 등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알리는 내용들로 구성됐다.

구미도시공사와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남성관)은 지난 7월 18일 찾아가는 환경과학교실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환경과학교실 운영 및 내실화를 위하여 상호협력하고 있다.

올해 ‘찾아가는 환경과학교실’ 대상 학교는 총 4개 학교로 146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2025년에도 ‘찾아가는 환경과학교실’ 수업은 계속될 예정이다. 송명주 기자

김천시립도서관, 신중년 컬리지 운영

사이버범죄 예방 주제 강의 보이스피싱 대한 이론 실습

김천시립도서관은 지난 15~24일까지 4회에 걸쳐 중장년층 시민들과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아름다운 신중년 컬리지 2학기 8교시 강좌를 성황리에 운영했다.

이번 8교시에는 스마트폰 활용과 사이버범죄 예방을 주제로 SNS소통연구소 경복지부장인 남호정 강사가 강의를 진행했다.

이번 강좌는 디지털 기기의 활용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요즘, 디지털 취약계층인 지역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될 스마트폰 및 키오스크 기능과 보이스피싱 대한 이론과 실습을 진행해 많은 호응을

받았다. 교육에 참여한 어르신은 “처음에는 스마트폰 사용에 어려웠지만, 교육을 듣고 자꾸 연습하다 보니 자신감이 생겼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순영 시립도서관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어르신들이 디지털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일상생활 편의성 향상과 위험 방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신중년 컬리지 2학기 7교시 강연은 10월 29일(화) 19시에 고규홍 작가가(나무의 가을나기에 담긴 경이로움)이라는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김천시립도서관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시립도서관(☎054-421-2854)으로 문의하면 된다.

문경시, 소 럽피스킨 대응... 긴급 차단방역

발생축 5두 살처분 완료 축산 전 농가 방제 총력

문경시는 26일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소 럽피스킨(LSD)발생에 따른 대책회의를 개최해 상황을 전파하고 반별 주요 임무를 분담해 긴급 차단방역에 나섰다.

문경시는 우지동 한우농가에서 10월 25일 소 럽피스킨병(LSD)이 확진됨에 따라 신속한 사전 준비로 발생축 5두에 대한 살처분을 완료했으며, 럽피스킨 전파 원인인 파리·모기 구제를 위해 식품위생과와 공조해 시 연무소독 차량 2대와 연무소독기 9대를 동원해 축산전 농가 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발생 지역인 우지동 사육농가는 축협 차량으로 집중방제를 실시하고 있다.

문경시 전 시민대상으로 재난안내문자를 발송해 상황을 전파하고, 관내 농가, 수의사 등 축산단체 등에 SNS 문자를 매일 발송하여 임상예찰 및 농장 소독, 해충방제 강화, 축산농가 모임금지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상주 낙각산

안동 영주 예천 봉화 영양



적십자 영주시, 백미 기탁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영주시지 구협의회는 지난 24일, 관내 취약 계층에게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 에서 지원하는 백미를 전달했다. 이날 20여 명의 봉사원들이 관 내 취약계층 26가구를 방문하여 백미 각 10kg씩을 전달하고 안부 와 건강상태를 확인했다. 신영희 회장은 "오늘 전달한 백 미로 힘든 생활을 하는 이웃들에 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 겠다"고 말했다.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영주시지 구협의회는 각종 재해 복구활동, 구호물품 전달, 위기가정 긴급지 원, 자원봉사자 역량 강화 교육 등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화합에 힘쓰고 있다.



기산총의원, 장학기금 기탁

(재)안동시장학회는 25일, 사단 법인 기산총의원이 지역인재 육 성을 위해 장학기금 300만원을 기탁했다. 사단법인 기산총의원은 임진 왜란 당시 목숨을 걸고 의병활동 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기봉 류 복기 선생과 그의 동생 류복립 선 생, 그리고 류복기 선생의 다섯 아들의 숭고한 애국 충정을 기 리고 충효사상을 연구하기 위해 2012년에 설립됐으며, 이러한 기 도유업의 정신을 계승하고 쇄퇴 해가는 충효사상을 고취하고자 임동면에 소재한 충의역사체험 장을 통해 다양한 교육·체험프 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봉화 춘양면 환경 봉사활동

봉화군 춘양면 서벽의용소방대, 햇살찬요양원은 지난 25일 관내 복지사각지대 이웃의 주거환경개 선을 위해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방문한 대상가구는 고령으 로 거동이 불편하고 치매증상을 앓고 있는 부부의 집으로 집 안팎 으로 쓰레기가 쌓여 있고 정리 정 돈이 되지 않고 있었다. 이날 서벽의용소방대원 15명, 햇 살찬요양원 직원 5명, 지역주민 6 명을 포함한 총 26명이 모여 평일 바쁜 생업에도 불구하고 복지사각 지대 이웃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장원경 춘양면장은 "지역주민을 위해 늘 힘써주시는 서벽의용소방 대원, 햇살찬요양원 직원 등의 노 고에 감사드리며, 살기좋은 춘양면 을 만들기 위해 더 많은 지원과 활 동을 바란다"라고 밝혔다.

영양 “영농부산물 처리 첫 시행... 지원 확대”

영농부산물 年 5000t 추정
읍·면 1개조 편성 처리 계획
“병해충 밀도 감소환경 개선”



영양군은 10월 한 달간 산불예방 미세먼지 저감·병해충 확산 방지를 위해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영양군은 10월 한 달간 산불예방 미세먼지 저 감·병해충 확산 방지를 위해 '영농부산물 안전처 리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관내 영농부산물 발생량은 연간 5000t 안팎 으로 추정되며 그동안 사업이 있기 전까지 처 리 방법이 따로 없어 불로 태우거나 산에 버리 는 등 각종 오염문제와 산불 위험에 노출되고 있었다.

이에 올해부터 예산 1억 원을 편성하여 '영농부 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시 행자로 선정된 영양군농촌지도자연합회는 읍·면 당 1개조(10명)를 편성하여 무료로 영농부산물 파쇄 및 폐기물 처리를 해주고 있다.

영농부산물 처리 방법으로는 고춧대, 과수원 잔 가지 등은 파쇄기 이용하고 비닐, 노끈, 농약병 등 폐기물은 처리 가능한 곳으로 옮겨주고 있다.

현재까지 총 (430농가) 고춧대 2,700t, 과수원 전 지목 300t 가량 처리되고 있으며 산림 인접지, 고 령층 농가, 밭 진입로 불량한 곳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 해주고 있다.

조용완 영양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올해 처음

시작되는 사업으로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지만 병해충 밀도 감소 및 환경오염 개선에 도움이 되고

있어 내년부터는 시스템을 개선하고 지원을 확대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권윤동 기자

영양군 제17회 영양원놀이 정기발표회

영양원놀이보존회 주관 행사
모의재판극 표현한 풍자놀이



영양군은 27일 오후 14시부터 산촌문화관광장 상 설공연장에서 영양원놀이보존회 주관으로 제17 회 영양원놀이 정기발표회를 개최했다.

영양원놀이는 조선시대 정월 초순 농한기를 이 용해 마을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루를 즐기면 서 노는 관아를 모방한 모의재판극이며 풍자놀 음이다.

마을 주민 중 학식깨나있는 사람을 원님으로 정 하고 그 이하 육방관속, 통인, 사령, 관노 등 여러 가 지 배역을 정해 죄인을 익살맞게 다스렸고 죄인은 전곡으로 죄값을 치렀다.

이때 모인 전곡은 마을의 공동기금으로 쓰 였다.

일제강점기에 전승이 단절되었다가 1970년 대에 복원하여 영양문화원 주관으로 영양여고 학생들이 매년 지역축제에서 시연을 이어온 바 있다.

체계적인 전승을 위해 2007년 영양원놀이보존

회를 발족, 매년 창립 시기 전후로 정기발표회를 개최하여 왔는데 올해는 가을 기운이 완연한 10 월 말 열리게 되었다.

이번 행사는 오후 13시 영양문화원에서 원님행 차를 모방한 길놀이를 시작으로 오후 14시부터 개회식과 민요 식전공연, 본 행사인 영양원놀이 공연, 영양여고 댄스 동아리 펠스팀 식후공연 순 으로 풍성하게 진행됐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우리 군의 고유한 무형문 화유산인 영양원놀이 계승·발전을 위해 힘쓰시 는 보존회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 한다”고 말하며, 이번 행사로 '영양원놀이' 이 군 민들과 방문객에게 널리 알려지고 다가가는 의 미 있는 자리가 되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권윤동 기자

예천,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점검

예천군은 지난 25일 오전 10시부터 민방위비상 급수시설을 비롯한 관내 민방위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김학동 군수는 이날 개포면 신음리 급수시설을 시작으로 물을 직접 마셔보며 급수상태와 수질, 기계설 운영현황 등을 꼼꼼히 점검하고, 민방위 경보시설 일부도 확인했다.

예천군은 전시 또는 비상사태를 대비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5개소와 경보시설 6개소, 관공서와 아파트 지하 등에 비상대피시설 23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다.

김 군수는 “민방위시설이 잘 관리되는 것을 확 인했다”며 “주변에 민방위시설이 있음에도 모르 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은데, 비상급수시설은 평상 시에도 이용 가능하니 주민들께서 안심하고 활용 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명주 기자

영주시 6개월 간 진행 ‘선비의 하루’ 일정 마무리

성수기 세 프로그램 208명 참여
“체험과 힐링 공간으로 자리매김”

(재)영주문화관광재단은 지난 5월 4일부터 10 월 26일까지 격주 금·토요일 진행된 영주시 계획 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선비의 하루’가 성황 리에 종료됐다.

‘안빈낙도’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은 △갯생음미 ‘선비촌 명가명주’, △갯생힐링 ‘마음

을 그리는 시간’, △갯생풍류 ‘선비촌, 느슨한 저녁 ’ 총 3개의 테마로 운영되어 참가자들의 큰 호 응을 얻었다.

갯생음미 ‘선비촌 명가명주’ 프로그램에서는 영주 특산물을 활용한 사과모주, 인삼꽃주 등 전 통주 체험을 진행하여 약 290명이 참여했다.

또한 갯생힐링 ‘마음을 그리는 시간’ 고택에 서의 아로마 테라피 요가, 필라테스 등 여러가 지 힐링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280여 명이 참여 했다.

야간 캠핑 체험 갯생풍류 ‘선비촌, 느슨한 저녁 ’ 프로그램도 약 210명이 참여하는 등 전 프로그 램에서 높은 참여율을 기록했다.

이번 사업에서 갯생음미와 갯생풍류 프로그 램은 사전 모집이 조기 마감될 정도로 인기를 끌 었다.

여름 성수기인 8월에는 세 프로그램 합산 208명이 참여하면서 월별 최다 방문 기록을 세웠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A 씨(서울 거주)는 “도시

서는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체험이었다”며, “전 통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프로그램들이 매우 인상적이었고 덕분에 선비촌의 매력을 알 고 간다”며 소감을 전했다.

재단 관계자는 “6개월 동안 진행된 프로그램 을 통해 선비촌이 단순한 관광지를 넘어 체험 과 힐링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며, “이번 성 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더욱 다채롭고 깊이 있 는 프로그램으로 찾아뵙겠다”고 전했다.

전상기 기자

예천군 가족센터 아이돌보미 상시 채용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자 등
서류 전형과 인·적성검사 실시

예천군 가족센터는 늘어나는 아이돌봄 서비스 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아이돌보미를 상시로 채용하고 있다.

예천군은 맞벌이 부부나 자녀 돌봄이 필요한 가 정을 위해 돌봄 전문가를 파견하는 아이돌보미사 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이돌보미’는 양육이 필요한 가정에 연계 돼 등·하원, 놀이활동, 돌봄, 준비된 식사와 간 식 챙겨주기 등 다양한 활동으로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 는다.

지원자격은 아이돌봄지원법에서 규정한 결격 사유가 없는 자로서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자, 아이돌보미 활동 경력자, 아이돌봄지원법 규정 관 련 자격증(보육교사, 유치원교사, 초·중등교사, 의



료인) 소지자다.

신규 아이돌보미 지원자는 서류 전형 심사, 인· 적성검사, 면접 심사를 거쳐 채용된다.

주정하센터장은 “매년 증가하는 예천군의 아이 돌봄 수요에 맞춰 아이돌보미를 상시 채용하고 있 으며, 아이돌봄서비스 확대로 돌봄 공백을 최소화 하고 지역 부모들의 양육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 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규 채용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예천군 가족센터(054-652-2514)로 전화하면 된다.

송명주 기자

안동 ‘인간다움, 사회적 관계 회복’ 인문 포럼

팬데믹 이후 공동체 회복 모색
지관서가 연계 인문 큐레이션

올해 제11회를 맞는 21세기 인문기초포럼이 ‘인 간다움, 사회적 관계의 회복’을 주제로 31일부터 내달 2일까지 안동국제컨벤션센터(ADCO)에서 개최된다.

이번 포럼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심화된 사회적 고립과 개인주의 속에서, 인간다움의 본질 을 되새기고 공동체 회복을 위한 해법을 함께 모 색하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올해 포럼은 우리가 현재 마주하고 있는 대전환 의 시대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과 인문기초를 통한 사회적 관계의 회복 방안을 발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인문기초 실천 과 확산을 위한 실질적 논의와 대중과의 소통을 목표로 하는 세션들이 진행된다.

‘인문기초 발견 및 공유 세션’에서는 오늘날 필요 한 인문기초를 탐색한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대립과 양극화로 인한 갈등을 해소할 방안을 논의한다.

‘인문기초 구현 및 확산 세션’은 실질적인 실천과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인문기초의 확산을 도 모하며, 일상 속에서 인문기초를 실천할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다.

‘인문정신문화 진흥 세션’에서는 다양한 연령대 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인문기초가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지속 가 능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관서와 연계한 인문 BOOK 큐레이션 전시, 인문기초 어린이 뮤지컬 ‘또봇’, 인문기초포럼 주간 프로그램인 ‘인문기초 in 안동’, ‘우리 동네 인문 곳 간’ 등의 부대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한편, 이번 포럼의 세부 내용은 21세기 인문 가치포럼 누리집(www.adf.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명주 기자



2024 죽변항 수산물축제

Jukbyeon Port
Seafood Festival



가자, 죽변항! 먹자, 수산물!

2024. 11. 8(금) ~ 11.10(일)

울진군 죽변면 죽변항 일원



- 일시 : 2024. 11. 8(금) 예심(11:00~)
- 장소 : 죽변항 수산물축제 주무대

주최 | 울진군

주관 | 울진군축제발전위원회

후원 | 한수원(주) 원자력본부

울진죽변수협